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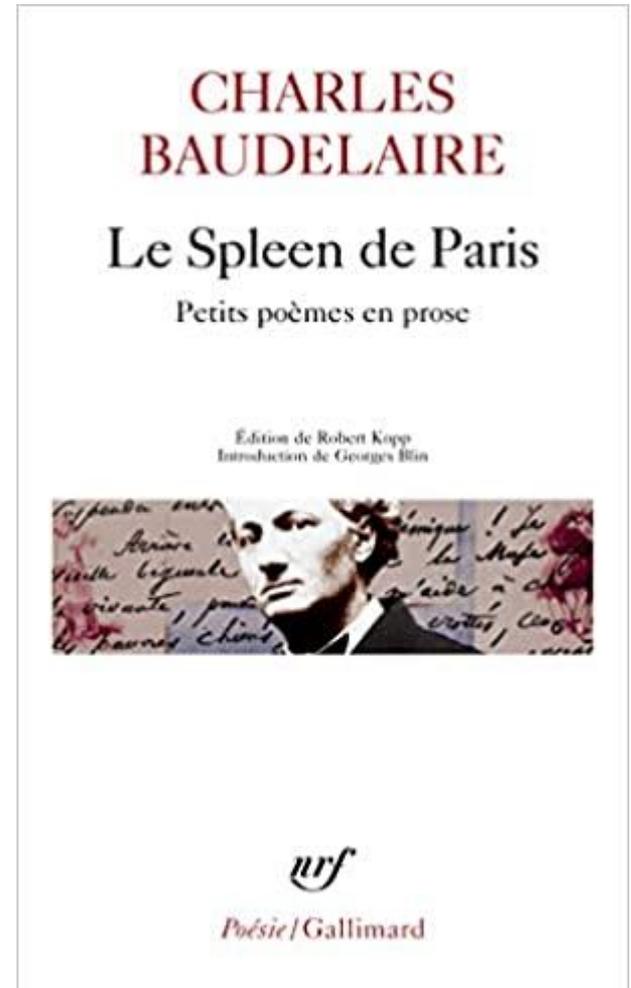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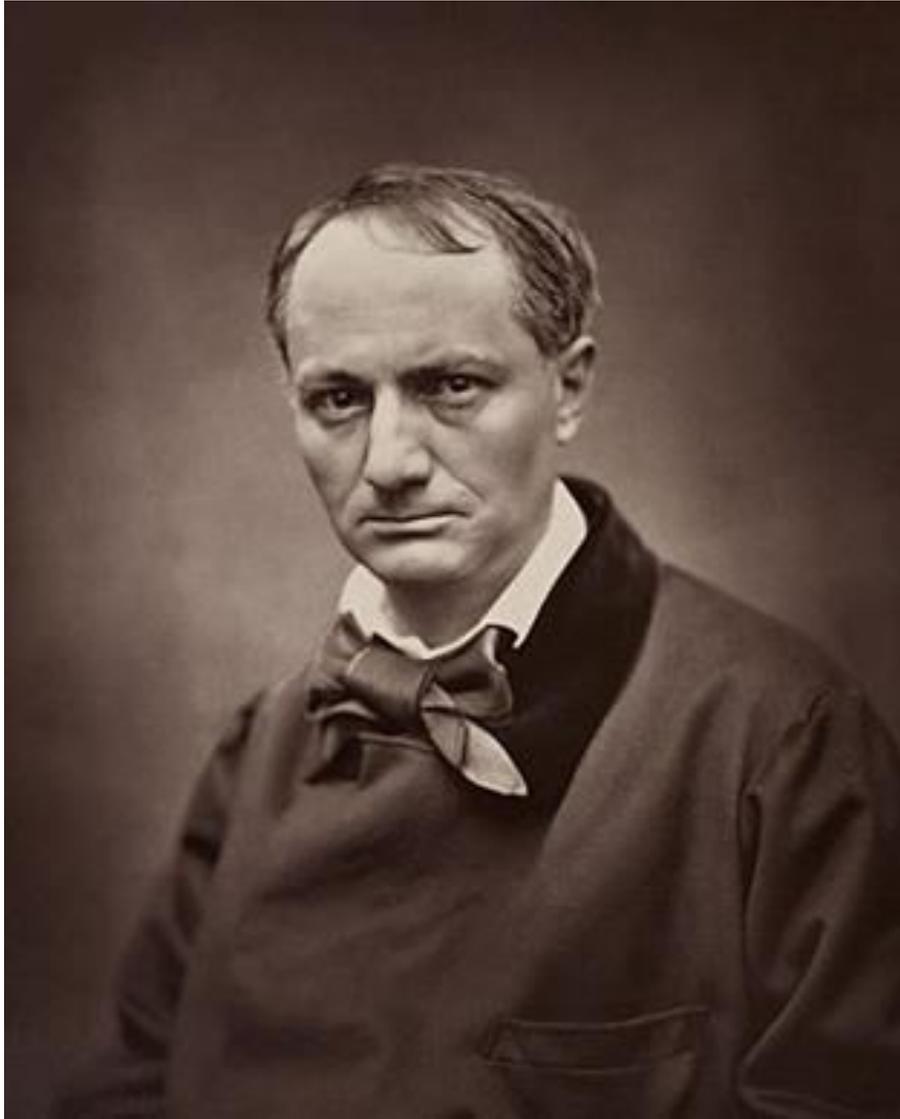
프랑스 공연예술탐색 강의 종강

카뮈의 <이방인>과 <오해 le Malentendu>



1957년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연 예술의 궁극 Charles Baudelaire



샤를르 보들레에르 유신론자의 <이방인'Étranger>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수수께끼 같은 사람
이여, 말해보라. 아버지, 엄마, 누이 혹은 형제인가?

—나는 아버지도, 엄마도, 누이도, 형제도 없다네.

—친구들은?

—그대는 아직도 내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말을 내뱉는구나.

—조국은?

—난 그게 어느 위도에 걸쳐 있는지도 몰라.

—아름다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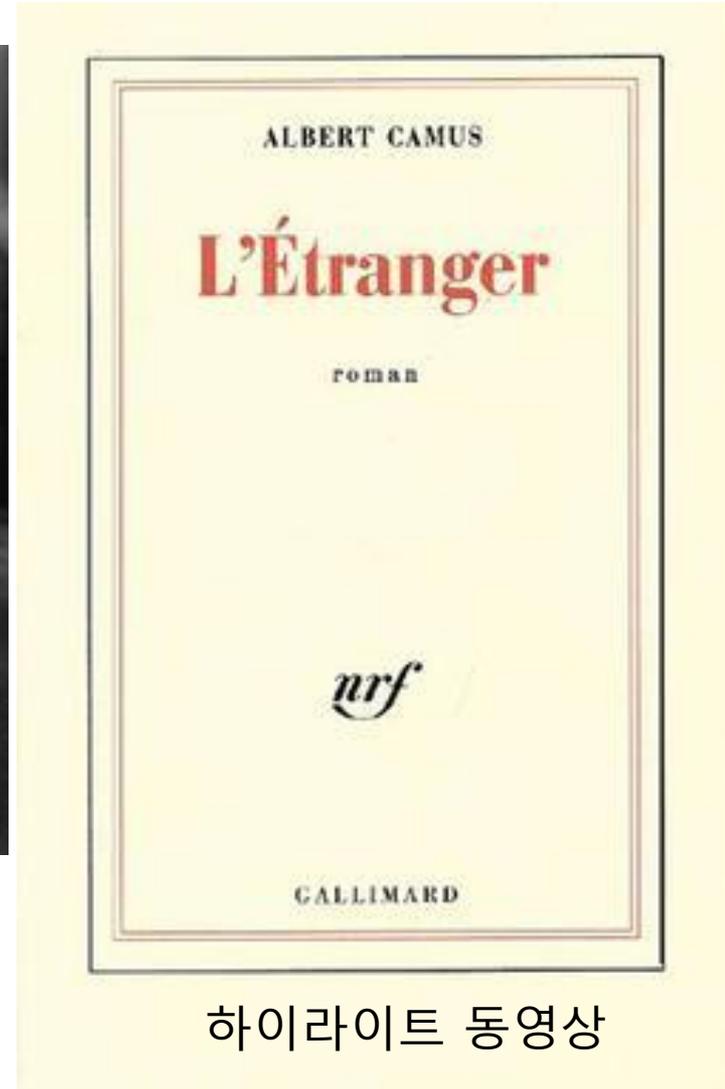
—여신이고 불멸이라면 내 기꺼이 사랑하리...

—황금은? — **황금은 싫네, 그대가 신을 싫어하듯이.**

— 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사랑한단 말인가, 비범한 이방인이여?

— 구름을 사랑하노라... 흘러가는 구름을...저기... 저곳에... 경이로운 구
름을!

20세기 최고의 프랑스 베스트셀러 Tendre indifférence



다정한 무관심에 나를 열다

하이라이트 동영상

THE
OUTSIDER
(L'ÉTRANGER)

CORONET
PRINTROOM

By **ALBERT CAMUS**

Adapted for the
stage by **BEN OKRI**



아비뇽 참가 폐막작

무신론자의 『이방인 *l'Étranger*』:

다정한 무관심 *la tendre indifférence du monde*

정녕 오랜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생각했다. 왜 만년에 엄마가 '약혼자'를 두게 되었고, 왜 새로운 출발을 즐기고 있었는지 이해가 될 것도 같았다. 저기, 저 곳 역시, 삶들이 스러져 가는 양로원 근처, 저녁은 우울한 휴식과도 같았다. 죽음에 그토록 가까이 다가가서야 엄마는 해방되어 모든 것을 다시 살고 싶은 자신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무신론자의 『이방인』'Étranger』: 다정한 무관심

아무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엄마의 죽음을 애도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나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내게서 고통을 정화하고 희망을 제거해 주었듯이, 별자리와 별들이 가득한 이 밤을 마주하고 나는 난생 처음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에 나를 열었다. 이 세상이 그토록 나와 닮았으며 그토록 형제답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내가 행복했음을, 또 여전히 행복함을 느꼈다.

무신론자의 『이방인』'Étranger』: 다정한 무관심

모든 것이 마무리 되고, 그리고
외로움을 덜기 위해 이제 내게
남은 일이라면 처형당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나를
증오의 함성으로 맞아주길 염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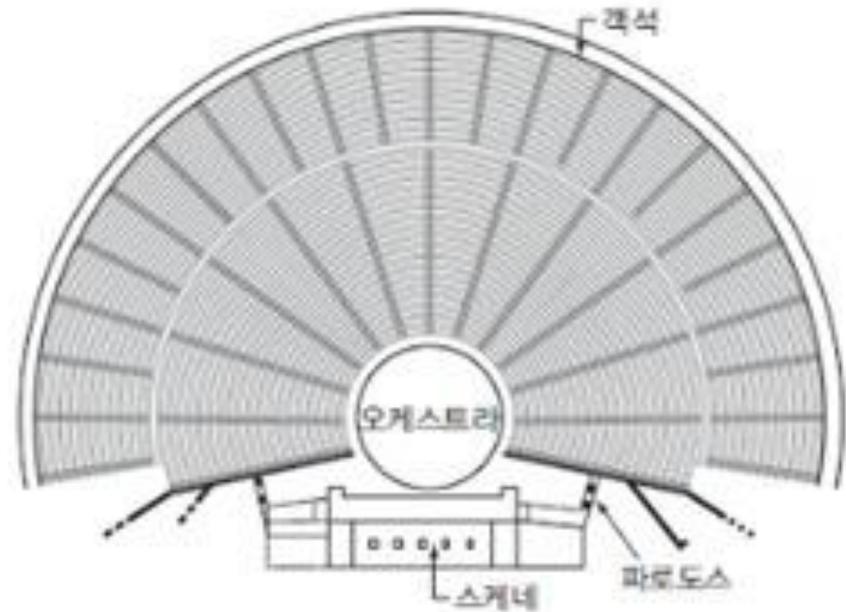
이기적 무관심 vs. 이타적 무관심

- 나와 세상이 무관한 줄 알았다.
- 그래서 세상이 내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다.
- 그런데 처음으로 엄마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세상에 내게 무관심한 한 것이 아니었다.
- 알고 보니 특정한 누가 아닌 그 어느 누구에게 따뜻한 관심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세상)이 있었다.
-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세상과의 길들임의 세계에 나를 열었다.
- 이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그런데) 이 (예술적, 심미적) 행복은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은 불행으로 여긴다.
- 그래서 <이방인Stranger>라 한다. 보이지 않는 다정한 무관심에 나를 열었노라.

에로티즘의 마음 자세

연극의 기원

- 마스크를 쓰고 나를 감춘다(과장된 표정, 소리의 전달을 위해 가면들은 모두 긴 나팔 형상의 입을 지님)
- 새의 탈을 쓴 라스코 동굴 사제의 종교적 의례에서 출발한 극장
- 주관자가 관객에게 입장료를 지불한다.
- 코러스가 오케스트라에서 주인공의 진실을 반복해서 노래하나, 주인공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한다(오디푸스처럼).



동영상

<이방인> 속 <오해>의 기원

매트와 침대 판자 사이에 오래된 신문 조각을 찾은 참이었다. 천
에 거의 달라붙어 누렇게 변색됐고 앞뒤가 비칠 정도였다. 사건.
사고에 실린 기사였다. 도입부가 빠져 있었는데, 보아하니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체코 마을에 살던 남성이 돈을
벌려 마을을 떠났다. 25년 뒤에 부자가 되어 아내와 아이를 데리
고 돌아왔다. 남성의 어머니와 누이는 고향 마을에서 여관을 운
영하는 중이었다. 남성은 어머니와 누이를 놀래려고 아내와 아
이를 다른 곳에 머무르게 한 채 혼자 어머니네 여관으로 갔다. 여
관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남성을 못 알아보았다. 남성은 장
난삼아 객실 하나를 잡았다. 수중에 든 자기 재산을 보여줬다. 밤
중에 어머니와 누이는 재산을 훔치려 남성을 망치로 때려죽인 후
시체를 강물에다 던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사정을 모르던 아내가
여관으로 찾아가서 여행객의 신분을 밝혔다. 어머니는 목을 뺐다.
누이는 우물에 몸을 던졌다. 이 기사를 수천 번은 읽었을 거다.
한편으로 믿기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당연하다 싶었다. 결국
자업자득인 면도 있다고 생각했다.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된다.

환대적 무관심

- 장령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잠시동안 망설임 후) 가 말입니다. 아들이 있어서, 그가 힘이 되어 주었다면, 그 아들을 잊으시지는 않으셨겠죠?
- 어머니 : 아들이라고요?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 같이 늙은 사람들이란 자식을 귀여워해 주는 것조차 잊어먹기가 일쑤죠. 마음이 닳고 닳아서 껍질만 남았는 걸요.
- 장 : 그러시겠죠. 그러나 아들 쪽은 결코 잊지 않고 있을 텐데요?
- 마르타 :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단호한 어조로) 설령 아들이 이 집에 숙박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손님이라면 그 대접밖에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즉 **환대적 무관심** **une indifférence bienveillante** 이죠. 우리 집에서 묵은 모든 손님들은 그것으로써 만족하죠. 방 값을 치르고, 열쇠를 받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잠시 후) 그래야만 우리들의 일이 편안해 집니다.

알베르 카뮈, <오 해> 서문

-작가의 현대성과 고전성 언급-

<오해>는 분명히 어두운 연극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43년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포위되고 점령된 나라의 한복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망명의 색채가 깃들여져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작품이 절망적인 연극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 불행, 그 스스로가 자신을 이겨 나가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비극형식에 의한 변모이다. **'비극 형식은 불행과 맞부딪쳐 힘차게 발길로 사는 것이어야 한다'**고 로렌스는 말한다. <오해>는 현대작품의 줄거리 속에다 숙명이라는 고대의 테마를 다시 다루려고 시도한 것이다.

합동공연 동영상

알베르 카뮈, <오 해> 서문

-현대성과 고전성-

이 새로운 시도의 성공여부는 관객들이 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비극이 끝났을 때, 이 연극이 숙명애의 극복을 변호해 주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그릇된 판단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반항의 희곡으로서 성실함의 윤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단지 자기가 누구인가를 솔직히 말해야 할 것이다. 침묵은 그를 지킨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면, 사람은 고독에 빠져 죽게 되고, 주위의 모든 것은 희생물이 되고 만다. 또 그 반대로 사실을 말한다면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죽기 앞서 타인과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을 돕게 되는 것이다.

아비뇽 페스티벌

Festival d'Avignon

- 남부 프랑스 보클뤼즈 코뮌 아비뇽 광장에서 매년 7월 개최
- 1947년, 연출가 장 빌라르(Jean Vilar)가 창설, IN 및 OFF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규모 종합(연극, 뮤지컬) 공연 세계 Best 축제
- IN공연, 약30-40작품, OFF 공연, 약1000여 작품 참가, 매년 80만 이상이 관람





영화와 마술

무너져 바닥에 깔린 탑이 땅바닥에서 우뚝 솟아
나 자욱한 먼지를 뚫고 위치로 돌아가는 쇼트
(shot, plan, 영화의 최소 단위, 한국에서는 컷이
라고도 함)의 충격

영화가 시간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를 넘어 기존
예술 장르를 초월하는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제
시한 코페르니쿠스적 시각의 전환

다큐멘터리 성격의 루미에르 형제 영화와 달리
멜리에스는 마술사로서 상업적 흥행 요소를 발
견, 초기에는 영화를 자신의 마술쇼의 막간 흥
미물로 자리매김.

마틴 스코시지, <휴고> 속 멜리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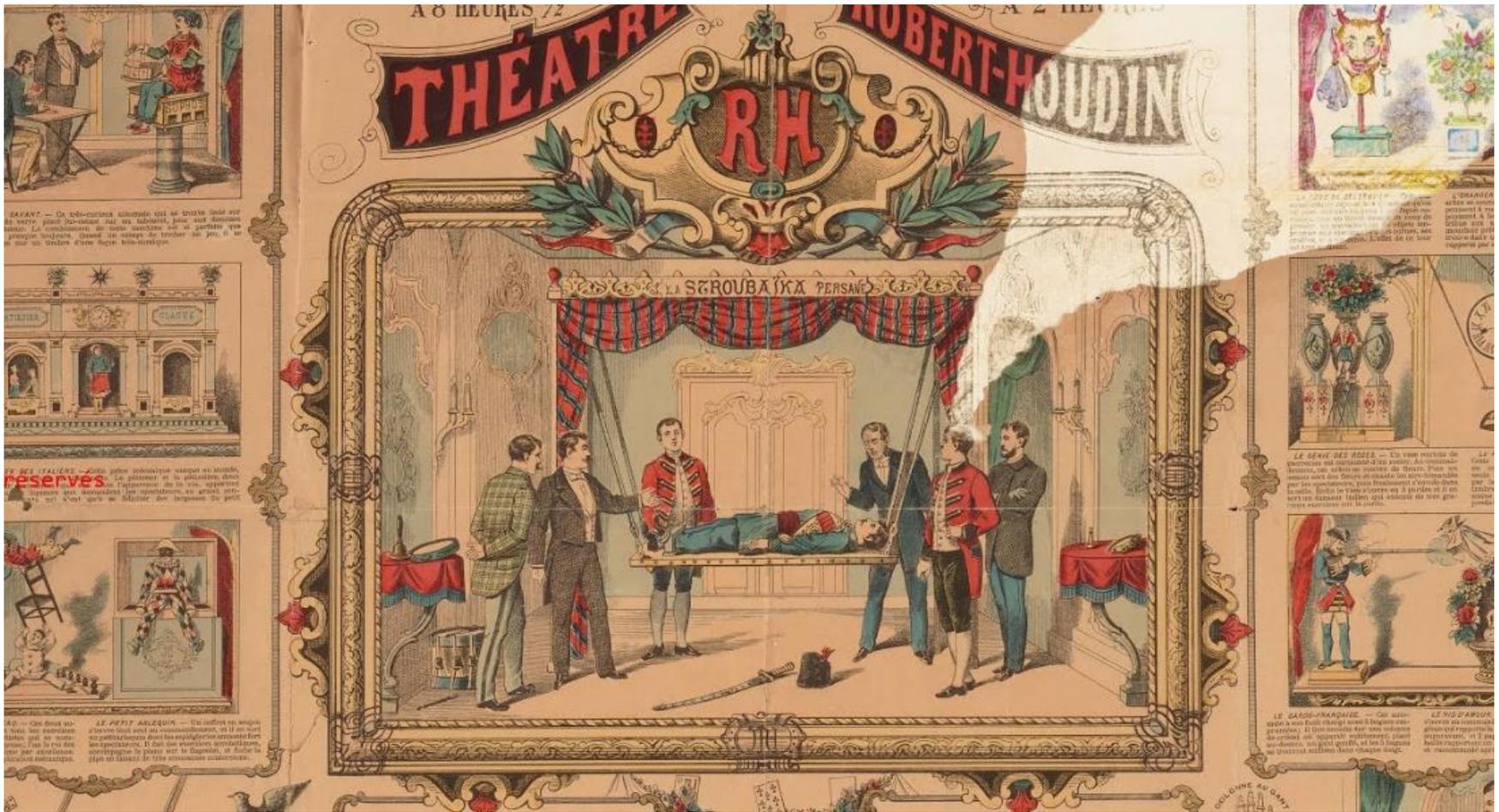
멜리에스 스승, 로베르 우딩의 마술쇼 전용 극장



1:34:36

0:3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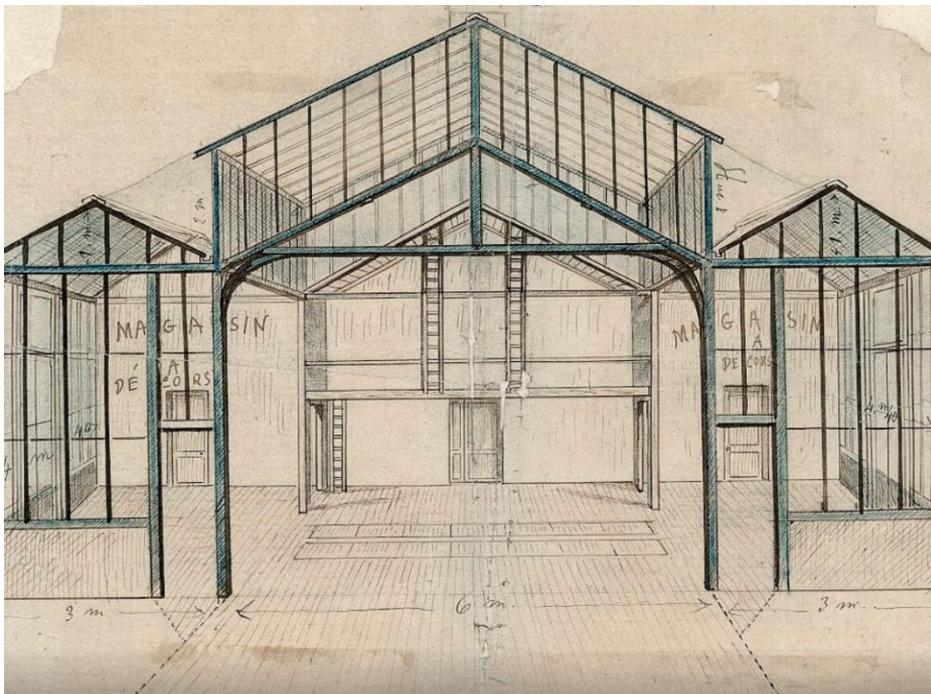
멜리에스 당시 마술 공연 우뎅 극장



영화 <사라지는 귀부인>에서 멜리에스가 마술을 선보이는 장면



조르쥬 멜리에스의 몽트뢰이 스튜디오



잘린 자신의 목을 부풀리는 마술 장면



SF영화 창시자 조르주 멜리에스, 달나라 여행 (Le voyage dans la lune, 1902)

시나리오, 제작, 감독, 미술: 조르주 멜리에스

원작: Jules Verne(지구에서 달까지 De la Terre à la Lune), H. G. Wells(The First Men in the Moon)

장르: Science Fiction *SF 장르의 효시

제작사: Star Film

배급 : Georges Méliès (France) ; American Mutoscope and Biograph Company, **Edison Manufacturing Company et Siegmund Lubin (USA)**

제작비 : 10,000 ou 30,000 francs 약 15,000,000 €. 당시 천문학적 거금.

제작 국가: France

포맷: 흑백noir et blanc (수작업 칼라colorisé à la main) – 35 mm – 1,33:1 - 무성

Genre : féerie, science-fiction

러닝타임 : 14 minutes (257,56 mètres)

개봉 : 프랑스 파리, 1902년, 9월 1일, 로베르 우뎡Robert-Houdin 극장

미국, 1902년 10월 4일 *해적판

영감: 당시 뉴욕에서 유행한 놀이기구 다크라이드(Dark Ride) A Trip to the Moon

<달나라 여행> 포스터

